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인 영¹⁾

박 혜 경[†]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20대와 30대 성인 2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할당되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후 노인차별주의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척도들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만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원 부족과 같이 누군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공감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의의와, 실험적 접근을 통해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자원 부족의 인과적 영향력을 검증하려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한 반복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노인차별주의, 자원 부족, 사회경제적 지위, 조절효과, 청년세대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E-mail: hpark@sungshin.ac.kr

노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를 경험하고(왕명자, 2010), 인생의 마지막 발달 단계로 노인이 된다. 이처럼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당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차별이 만연해 있다. 예컨대, 청년들의 40퍼센트는 노인혐오 표현을 인터넷에서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세계일보, 2019). 더불어, 한국 거주 노인의 86.2%가 의료진이 자신의 병을 나이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어떤 일을 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말을 듣는 것, 나이로 인해 고용을 거절당하는 것과 나이로 인해 선심을 받는 대상이 되거나 무시당하는 노인차별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김육, 2003).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은 노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은 노인의 정신건강(박현식, 2008; 천희란, 김일호, 2017)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진철숙, 2015) 및 노인 자살(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김영, 김남희, 2018; 조성희, 김경미, 2016; Lau & Pritchard, 2001; Osgood, 2000)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은 노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학대 및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14.9%인데, 이 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5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9).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노인차별주의, 즉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이

에 따른 차별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차별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 즉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주의에 관한 여러 이론적 입장 가운데 사회구조적 관점에 중점을 두어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노인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주현, 2009, 2015).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어떠한 사회적 상황이 사람들을 노인차별주의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욱 노인차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차원의 개입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차별주의는 ageism의 번역어이다.¹⁾ Ageism

1) ageism은 ‘연령주의’(김주현, 2009; 황민영, 정순돌, 김주현, 2018), ‘연령차별’(김주현, 주경희, 오혜인, 2013; 신광영, 2011), ‘노인차별주의’(김육, 2002;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천희란, 김일호, 2013) 등으로 다르게 번역, 사용되어 왔다. Ageism은 본래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편견을 의미하므로(Butler, 1969), 반드시 노인세대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세대 외의 연령집단도 타 연령집단에 의해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Nelson, 2002).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ageism을 ‘연령주의’가 아닌 ‘노인차별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은 Butler(1969)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한 연령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편견으로 정의되지만, 대개 노인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 및 차별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된다(Butler, 1980). Butler(1987, 1995)는 ageism이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이어 사회에 존재하는 세 번째 중요한 차별주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는 인종과 성별에 따라 그 편견을 피해갈 여지가 있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인이 되므로 ageism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가능성을 지닌다(Butler, 1969).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노인차별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되어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발생한다는 이론들을 통하여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한다. 이 사회구조적인 관점에는 대표적으로 집단 간 위협 이론(intergroup threat theory; Stephan & Renfro, 2004)과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Sherif, Harvey, White, Hood, & Sherif, 1961)이 속한다. 먼저, 집단 간 위협 이론에 따르면, 외집단으로 인하여 내집단이 손해를 본다는 위협 인식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다(Stephan, Ybarra, & Morrison, 2009). 즉, 비(非) 노인세대에게 노인세대가 위협이 된다고 인식될 때 비 노인세대가 노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년세대 및 장년세대와 같은 비 노인세대에게 노인세대가 다양한 측면에서 위협으로 다가오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와 노인차별주의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밝힌 결과로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정치적 및 가치

관 측면에서 노인세대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노인에게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이러한 결과는 노인세대가 필요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다른 연령집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될 때 비 노인세대가 외집단인 노인세대에게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세대는 장년세대에 비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노인세대로 인한 위협을 더 민감하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에서는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이 집단 간의 편견을 유발한다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North와 Fiske(2012)는 외집단이 내집단의 성공, 성취, 자원 획득 기회 등을 위협할 때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극대화된다는 이론들을 통하여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하였다. 즉, 희소한 자원이거나 공동의 목표를 두고 세대집단 간 경쟁이 심화될 때, 비 노인세대의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늘어난 고령 인구와 국민연금, 일자리 등의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세대 간 편견과 긴장이 증폭되면, 확대된 노인세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젊은 세대들이 노인차별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요약하면, 집단 간 위협 이론과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으로 대표되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될 때 외집단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이론들을 통하여 비 노인세대의 노인차별주의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은 실증적으로 검토된 바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가 지닌 노인차별주의적 태도가 자원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노인차별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예상은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먼저, North와 Fiske(2016)는 20대의 연구참가자들에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일자리와 국가의 자산(asset) 등의 자원이 모든 세대를 수용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제시하였다. 이때,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노인세대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젊은 세대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한 반면, 풍부한 자원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가용 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자원은 충분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후, 고령의 노인 Max가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작한 후, Max에 대한 연구참가자들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원 부족 조건 하에서 Max가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함께 전달받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은퇴를 거부한다는 정보를 받은 연구참가자들이 Max와 교류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고령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긴장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고령 근로자들을 배제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Ospina(2019)의 연구에서는 하향취업(underemployment)과 직업 불안정성이 노인차별주의를 예측하는 변수임을 밝혔다. 즉,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낮은 곳에 취직했다고 느끼는 경우와 직업 불안정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노인차별적인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미국의 경기 침체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 늘어난 고령인구는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있어 구직자들의 반발을 샀다. 즉,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와 같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고, 이는 잠재적으로 집단 간 적대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세대 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는 아니나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주목받게 되었고,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세대 갈등의 주요 유발 요인으로 고려된 바 있다(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그러므로 미래에는 인구 구조 및 연령 분포의 변화와 함께 서로 다른 연령집단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빈번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은 일자리 문제로, 고령화, 일자리 부족, 저성장 등의 어려움이 겹쳐 전 세대가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이재경, 2018). 그리고 늘어난 고령 인구와 국민연금, 일자리 등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대 간 편견과 긴장이 증폭되면, 확대된 노인세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젊은 세대들이 노인차별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조절변수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앞서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을 개관하였으나,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만큼 자원 부족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들을 토대로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가설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원 부족 상황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론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첫 번째, 집단 간 위협 이론에 따르면 외집단으로 인하여 내집단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다(Stephan et al., 2009). 그런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만성적인 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신과 내집단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내집단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Rios, Sosa, & Osborn, 2018). 실제로 한 연구에서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이민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와 대학 입학 정원 등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시하자 반이민자적 태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연구참가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Schmuck & Mattes, 2015).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기술 이주자와 이민자에 대한 외국인 혐오적 태도(xenophobia)

를 더 많이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위협 인식이 매개한다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Halperin, Canettinism, & Pedahzur, 2007). 이러한 결과들은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을 위한 지하철 복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의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세대에게는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노인세대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사용할 자원과 복지 등을 위협한다고 인식한다면 노인세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변수로 기능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Esses, Jackson, & Armstrong, 1998)은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Sherif, 1966; Sherif et al., 1961)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자원 스트레스(resource stress)가 집단 간 경쟁을 촉진한다고 제안한다. 자원 스트레스란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으로 인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을 인지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자원에는 돈과 같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권력, 일자리 등이 포함된다(Esses et al., 1998). 즉, 외집단이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인식으로 인해 자원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집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높은 자원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자원 스트레스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을 때 노인차별주의를 덜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의 초점과 정서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이 사회 환경을 지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자원과 명예, 그리고 교육 기회를 지니기 때문에 높은 통제감(Johnson & Krueger, 2005)을 느끼며, 자신의 독특한 선택과 선호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등(Snibbe & Markus, 2005)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삶에서 거두는 성과들이 타인의 도움과 같은 외부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적게 느끼고(Johnson & Krueger, 2005), 기질적인 영향보다 상황적 영향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며(Kraus, Piff, & Keltner, 2009), 자기 자신보다 타인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Kraus & Keltner, 2009)이 있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타인과 연결되려는 욕구를 지니고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Piff, Kraus, Côté, Cheng, & Keltner, 2010),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고통 받는 타인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느끼고(Stellar, Manzo, Kraus, & Keltner, 2012),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공감을 더 많이 한다(Cote, Piff, & Willer, 2013).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원 부족을 떠올리지 않았을 때보다 자원 부족을 떠올렸을 때,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받을 피해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원 부족 상황 하에서 노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게 되어 노인세대에 덜 차별주의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노인집단은 국가의 혜택을 누리며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이미지(김미혜, 2003; 김완태, 조문기, 2015; 장혜순, 조인숙, 2003)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노인세대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노인세대가 전자에 속하는 것, 즉 국가의 혜택을 누리며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면, 자원 부족 상황에서는 내집단의 몫을 가져가는 집단으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어 노인차별주의를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반대로, 노인세대를 힘없고 약한 이미지로 인식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세대가 입을 피해를 먼저 떠올릴 것이고, 이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어져 노인차별주의 경향을 덜 나타낼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듯 상반된 이미지를 지닌 노인세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조절효과의 방향은 어떠한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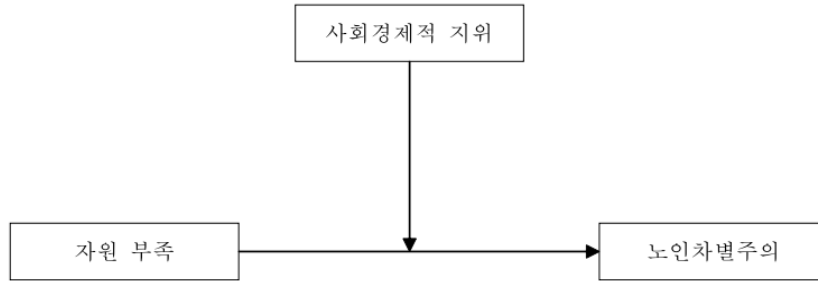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 개관

본 연구의 목표는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위협 이론과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을 토대로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더불어, 자원 부족 상황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노인차별주의적 태도가 달라지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가설 1. 자원 부족의 점화는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가설 2.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연령이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인 청년세대의 한국 성인 21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청년세대의 연령 기준은 청년 임

대주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의 기준 연령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의 성별은 여성 113명(51.6%), 남성 106명(48.4%)이었다. 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20세에서 3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9.68세였다($SD=5.54$). 마지막으로, 연구참가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107명, 30대가 112명으로 균등히 분포되어 있었다.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연구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조사회사에 자료 수집을 의뢰하였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참가자들은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전 동의란에 표시하고 질문지 작성을 시작하였다.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의 점화를 위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 후, 조작 점검 문항과 노인차별주의 척도에 답하였다. 반면,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일상생활 사건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 후, 자원 부족 조건과 동일한 조작 점검 문항과 노인차별주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들에 관한 질문들에 응답함으로써 연구가 종료되었다. 모든 연구참가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조사회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제공받았다.

일상 예상 과제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기 위하여, 예비연구를 통해 결정한 글쓰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심리학 연구에서 자원 부족은 일반적으로 점화로 조작되는데, 점화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게임에서 답을 추측할 수 있는 포인트의 수를 제한하거나(Shah et al., 2012),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이 부족했던 경험을 상기하고 글로 쓰도록 하여(Roux, Goldsmith, & Bonezzi, 2015) 자원 부족을 조작한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자원 부족을 유도할 수 있으며(Sharma & Alter, 2012), 연구참가자들에게 불황의 단서(Durante, Griskevicius, Redden, & White, 2015; White, Kenrick, Neel, & Neuberg, 2013)와 같은 자원 부족에 대한 거시적 단서를 제시하여 조작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특정 자원을 선택하여 제시하기보다 연구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자원을 각자 떠올리고, 그 자원이 부족할 때 경험하게 될 일을 서술하는 방식(e.g., Roux et al., 2015)을 사용하여 자원 부족을 점화하였다.

Roux 등(2015)은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기 위하여 연구참가자들에게 과거에 자원이 부족하였던 경험을 떠올린 후, 그것을 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일상 회상 과제(episode recall task)를 사용하였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은 대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오래 기

억하므로(e.g., Bless, Mackie, & Schwarz, 1992; Pratto & John, 1991), 과거에 자원이 부족했던 경험을 기술하도록 하는 일상 회상 과제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자원 부족 상황을 생생하게 점화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회상은 틀리기 쉬운 추정치로(Kahneman, 1999),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 장미빛으로 변화하고(Mitchell, Thompson, Peterson, & Cronk, 1997), 그에 따라 정서의 강도 또한 줄어들어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하는 것보다 미래에 겪을 일을 추측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강력한 정서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e.g., Lench et al., 2019; Wirtz, Kruger, Scollon, & Diener,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이 아닌 연구참가자들의 미래 경험을 상상하여 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일상 예상 과제를 사용하였다. 자원 부족 조건(실험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미래에 자원이 부족할 때 벌어질 일들을 3개나 4개 정도 떠올린 후, 그 중 두 가지가 실제로 벌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각각 자세히 묘사하였다(예: ‘자원이 고갈된다면 남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자원이 고갈되면 일할 의지를 상실하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사회가 될 것이다’). 통제 조건의 경우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떠올리는 측면에서는 실험 조건과 동일하지만, 자원 부족이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하여 상상하도록 하였다. 즉,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상생활 경험을 하게 될지를 3개나 4개 정도

떠올린 후, 그 중 두 가지가 실제로 벌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자세히 묘사하였다(예: ‘집으로 운전해서 귀가할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조작 점검

자원 부족의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Roux 등(2015)에서 사용되었던 조작 점검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총 4개의 문항(‘나의 자원은 부족하다’, ‘나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와 ‘나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에 대하여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원 부족 상황이 효과적으로 점화된다면, 위 4개의 문항들에 대하여 실험 조건의 점수가 통제 조건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Roux 등(2015)에서의 조작 점검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2였다.

측정도구

노인차별주의 척도

연구참가자들의 노인차별주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Fraboni, Saltstone과 Hughes(1990)가 개발한 노인차별주의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이하 FSA)를 김지연 등(2012)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정서적 회피 7문항(예: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노인들의 모임에 초대받아도 가고 싶지 않다’), 차별 5문항(예: ‘노인들은 다른 사

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어서는 안 된다’) 및 고정관념 6문항(예: ‘대부분의 노인들은 과거 속에 갇혀 산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불평이 많다’)을 포함,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전적으로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김지연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1(정서적 회피 .82, 차별 .61, 고정관념 .6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정서적 회피 .85, 차별 .54, 고정관념 .77)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에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는 객관적 측정방식과 주관적 측정방식을 종합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측정방법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여 준다는 장점이 있어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관련 논의는 변상우, 2018 참조).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의 최종 학력과 월 평균 가계소득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았다. 최종 학력은 8점 척도로(1: 무학, 8: 대학원 박사 졸업), 월 평균 가계 소득은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1: 150만원 이하, 10: 951만원 이상), 두 문항 모두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과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가계소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McArthur의 사다리(Adler, Castellazzon, & Ickovic, 200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cArthur의 사다리는 연구참가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10칸짜리 사다리 그림을 제시하여 스스로 어떤 칸에 위치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는 측정 도구이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자신의 위치를 평가하도록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을 뜻한다. 분석에는 연구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된 월 평균 가계 소득, 최종 학력 및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를 표준화하여 평균 낸 값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업 및 종교 유무를 측정하였다. 더불어, 노인과의 동거 경험(Ishii & Tado'oka, 2015) 및 노인과의 접촉 경험(김민희, 2013; Allan & Johnson, 2008; Boswell, 2012; Lytle & Levy, 2019; Stewart, Giles, Paterson, & Butler, 2005; Tam, Hewstone, Harwood, Voci, & Kenworthy, 2006; Van Dussen & Weaver, 2009)이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과의 동거 경험을 진위형 문항(1=동거 경험 있음, 2=동거 경험 없음)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Hutchison, Fox, Laas, Matharu와 Urzi(2010)가 개발하고 김지연 등(2012)이 번안한 노인 접촉 척도(예: '내가 자랐던 동네에는 노인들이 많았다(접촉빈도)', '나는 노인들과 좋았던 경험이 많이 있다(접촉의 질)')를 사용하여 노인과 교류한 경험과 빈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전적으로 동의한다). Hutchison 등(2010)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접촉빈도 .62, 접촉의 질 .6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4(접촉빈도 .70, 접촉의 질 .85)였다.

자료분석

SPSS 25.0 버전과 PROCESS macro 3.5(Hayes, 2017)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 간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 X 2 분산분석과 Pearson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원 부족의 점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원 부족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원 부족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직업 및 종교 유무와 관련하여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는지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chi^2=.113$, $df=1$, *n.s.*), 직업($\chi^2=7.35$, $df=9$, *n.s.*) 및 종교 유무($\chi^2=.719$, $df=1$, *n.s.*)에서 두 조건의 연구참가자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 접촉 경험 상에서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표 1.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인 접촉 경험 상에서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N=219)

요인	자원 부족 점화 조건(n=109)		통제 조건(n=110)		t	p
	M	SD	M	SD		
사회경제적 지위	0.03	.73	-.03	.66	.616	.538
노인 접촉 경험	3.28	.89	3.22	1.00	.484	.629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t(217)=.62, n.s.$)와 노인 접촉 경험($t(217)=.48, n.s.$)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따른 노인차별주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 X 2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 조건(자원 부족 점화 조건 vs. 통제 조건), 성별(여성

표 2. 실험 조건과 종교 유무, 성별 및 노인과의 동거 경험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N=219)

실험 조건		M	SD	n
자원 부족 점화	종교 있음	3.01	.51	29
	종교 없음	3.26	.66	80
통제	종교 있음	3.14	.65	35
	종교 없음	3.29	.69	75
합계	종교 있음	3.08	.59	64
	종교 없음	3.27	.67	155
자원 부족 점화	여성	3.16	.60	55
	남성	3.22	.66	54
통제	여성	3.23	.70	58
	남성	3.25	.66	52
합계	여성	3.20	.65	113
	남성	3.24	.66	106
자원 부족 점화	동거 경험 있음	3.05	.65	51
	동거 경험 없음	3.32	.59	58
통제	동거 경험 있음	3.18	.67	65
	동거 경험 없음	3.33	.69	45
합계	동거 경험 있음	3.12	.66	116
	동거 경험 없음	3.32	.63	103

vs. 남성), 종교 유무(있음 vs. 없음), 그리고 노인과의 동거 경험(있음 vs. 없음)에 따라 노인차별주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교 유무의 주효과($F(1, 215)=4.16, p<.05$)와 노인과의 동거 경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15)=5.62, p<.05$). 구체적으로, 종교를 가진 연구참가자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노인차별주의 경향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_{종교있음} = 3.08, M_{종교없음} = 3.27$). 더불어, 노인과 동거하였던 경험이 있는 연구참가자들이 동거 경험이 없는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노인차별주의 경향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_{동거경험 있음} = 3.12, M_{동거경험 없음} = 3.3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분석에서 종교 유무와 노인과의 동거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차별주의와 노인 접촉 경험($r=-.52, p<.001$) 및 월 평균 가계 소득($r=-.15, p<.05$)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과거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많이 지닌 사

람일수록, 그리고 월 평균 가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학력과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p>.05$.

자원 부족 점화에 대한 조작 점검 결과

자원 부족에 대한 글쓰기 과제가 실제로 자원 부족 상황을 점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글쓰기 과제 이후에 측정된 조작 점검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은 집단 변수로 투입하였고, 조작 점검 문항들에 대한 응답 평균은 종속 변수로 투입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 부족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들에 대한 응답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17)=2.50, p<.05$. 구체적으로,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의 점수 ($M=4.49, SD=0.77$)가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M=4.23, SD=0.75$)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

표 3.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N=219$)

	1	2	3	4	5
1	1				
2	-.515***	1			
3	-.119	.139*	1		
4	-.148*	.111	.101	1	
5	-.014	.092	.235***	.329***	1
M	3.22	3.25	5.48	4.83	5.00
SD	0.65	0.94	0.89	2.46	1.55

주. 1=노인차별주의, 2=노인 접촉 경험, 3=최종 학력, 4=월 평균 가계 소득, 5=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p<.05$, ** $p<.01$, *** $p<.001$.

표 4. 조건 간 조작 점검 문항들에 대한 응답 차이 검증 결과(N=219)

실험 조건	<i>n</i>	<i>M</i>	<i>SD</i>	<i>t</i>
자원 부족 점화 조건	109	4.49	.77	2.50*
통제 조건	110	4.23	.75	

p*<.05, *p*<.01, ****p*<.001.

자들이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자들보다 현재 자신이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글쓰기 과제를 통한 자원 부족의 점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 부족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친 영향

조절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노인접촉 경험($r=-.52, p<.001$)을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더불어 2 X 2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종교 유무와 노인과의 동거 경험을 더미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2단계에서는 실험 조건(1: 자원 부족 점화 조건, 0: 통제 조건)을 투입하여 각 항목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 부족의 점화는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074, n.s.$ 1단계에서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통제변수들의 설명력은 27.2%였으나, 2단계에서 실험 조건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0.3% 증가하여 27.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표 5.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219)

단계	예측변수	노인차별주의				
		<i>B</i>	<i>SE</i>	β	<i>R</i> ²	ΔR^2
1 (통제)	노인 접촉 경험	-.355	.043	-.511***	.272	.272
	종교 유무	.121	.084	.085		
	노인과의 동거 경험	-.019	.080	-.015		
2	노인 접촉 경험	-.355	.043	-.510***	.275	.003
	종교 유무	.125	.084	.087		
	노인과의 동거 경험	-.010	.081	-.008		
	자원 부족 점화	-.074	.077	-.057		

p*<.05, *p*<.01, ****p*<.001.

자원 부족 점화와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무엇보다 두 변수 사이를 중재하는 제3의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즉, 서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조절효과 분석의 초점은 예측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예측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에, 예측변수의 주효과가 유의한지 아닌지 여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Baron & Kenny, 1986; Hayes, 2015). 따라서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자원 부족의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조건(자원 부족 점화 vs. 통제)을 예측변수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종합 지표를 조절변수로, 노인차별주의는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예측변수는 실험 조건을 1, 통제 조건을 0으로 더미코딩하여 투입하였으며, 결과변수와 조절변수인 노인차별주의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각각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노인접촉경험과 종교 유무 및 노인과의 동거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 부족 점화는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075, n.s.$),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58, p<.05$).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주의를 덜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와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B=.260, p<.05$.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는 지지되었으며, 이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값 선택방법(pick-a-point approach;

표 6.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N=219$)

	Coefficient(B)	SE	t	p
Intercept(Constant)	4.239	.255	16.648***	.000
자원 부족 점화 (X)	-.075	.076	-.986	.325
사회경제적 지위 (M)	-.158	.074	-2.133*	.034
X * M	.260	.110	2.368*	.019
종교 유무	.113	.084	1.345	.180
노인 접촉 경험	-.355	.043	-8.291***	.000
노인과의 동거 경험	-.014	.080	-.171	.864

* $p<.05$, ** $p<.01$, *** $p<.001$.

Aiken & West, 1991)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1 표준편차 높은 집단과 1 표준편차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평균 $\pm 1SD$ 수준에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7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조건부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자원 부족의 점화에

따라 노인차별주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theta_{X \rightarrow Y} | (M=.6936) = .105, t(212) = .98, n.s., CI = -.11 \sim .32$.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자원 부족의 점화에 따라 노인차별주의 수준이 유의하게 달라졌다, $\theta_{X \rightarrow Y} | (M=-.6936) = -.255, t(212) = -2.38, p < .05, CI = -.47 \sim -.04$.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에만, 자원 부족이 점화되면 노인차별주의 경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의 전체 구간에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구간과 유의하지 않

표 7.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건부 효과(N=219)

사회경제적 지위	Effect	SE	t	p	95% CI	
					LL	UL
낮음 (-1SD)	-.26	.11	-2.38	.018	-.4661	-.0439
평균 (Mean)	-.07	.08	-.99	.325	-.2246	.0748
높음 (+1SD)	.11	.11	.98	.330	-.1074	.3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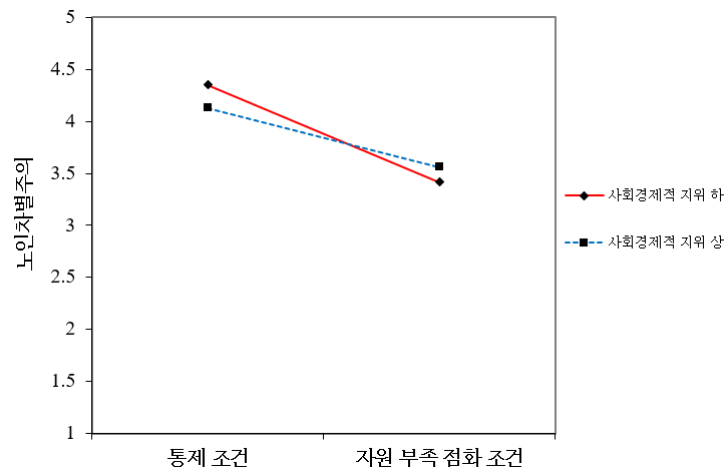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자원 부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호작용 효과

은 구간을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technique; J-N)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존슨-네이만 방법은 조명등 분석법(floodlight analysis; Spiller, Fitzsimons, Lynch Jr, & McClelland, 2013) 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 예측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구간과 유의하지 않은 구간을 탐색하여 준다. 앞서 제시하였던 특정 값 선택방법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에 따라 임의로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임의적이고 제한된 조절변수의 조건부 값을 선택하여 분석한다는 제한점을 지니므로(Preacher, Rucker, & Hayes, 2007), 존슨-네이만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효과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값이 -0.3593 (상위 30.59%, 하위 69.41%) 이하인 구간에서만($n=152$),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7$, $SE=.09$, $t=-1.97$, $p=.05$.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M \leq -0.3593$ 구간에서 조건부 효과가 음수로 나왔으므로, 자원 부족을 점화 받은 연구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노인차별주의를 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표 8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자원 부족의 점화와 노인차별주의 간의 관계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조절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부족의 점화는 노인차별주의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

표 8. 존슨-네이만 방법을 통한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Effect	se	t	p	95% CI	
					LL	UL
-1.7196	-0.5214	0.2028	-2.5714	0.0108	-0.9211	-0.1217
-1.5256	-0.471	0.1832	-2.5708	0.0108	-0.8322	-0.1099
-1.3317	-0.4207	0.1641	-2.5634	0.0111	-0.7442	-0.0972
-1.1377	-0.3703	0.1456	-2.5435	0.0117	-0.6573	-0.0833
-0.9438	-0.3199	0.1279	-2.5009	0.0131	-0.5721	-0.0678
-0.7498	-0.2696	0.1115	-2.4170	0.0165	-0.4894	-0.0497
-0.5559	-0.2192	0.0970	-2.2589	0.0249	-0.4105	-0.0279
-0.3619	-0.1689	0.0854	-1.9761	0.0494	-0.3373	-0.0004
-0.3593	-0.1682	0.0853	-1.9712	0.0500	-0.3363	0.0000

주. 간결성을 위하여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 영역만을 표로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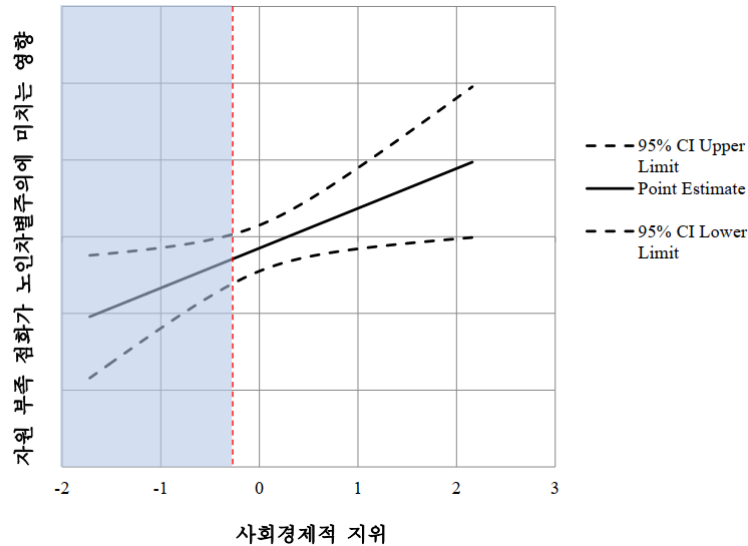


그림 3. 자원 부족과 노인차별주의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주의 간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 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만 자원 부족의 점화가 노인차별주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연구참가자들은 자원 부족이 점화되지 않았을 때 비하여 자원 부족이 점화되었을 때 노인차별주의를 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달리,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원 부족의 점화를 위해 사용한 지시문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시문에 몇 가지 예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 부족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는 물, 식량, 시간, 돈을 자원의 예로 제시하였고, 통제 조건의 연구참가

자들에게는 운동하기, 친구 만나기, 식사하기, 휴식 취하기를 일상 경험의 예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시들이 오히려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이 점화되는 것을 방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예시에 포함되었던 자원들은 선행 연구에서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할 것으로 거론되었던 자원(일자리, 경제 상황, 정치적 영향력 등)과는 다른 형태의 자원들이다. 비록 조작 점검 결과 자원 부족 조건과 통제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지시문 속 예시로 인하여 연구참가자들에게 노인차별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자원들이 점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자원 부족 점화 조건의 연구참가자들에게 예시로 제시하였던 물, 식량, 시간, 돈과 같은 자원은 일상을 영위하도록 하는 필수 자원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이러한 필수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자원 부족 점화의 영향을 비교적

강하게 받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지시문에 노인차별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정치적 영향력 등)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조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을 자원 부족 점화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할당하였다. 그러나 자원 부족에 관한 기존 연구들(e.g., Fan, Li, & Jiang, 2019; Hill, Rodeheffer, Griskevicius, Durante, & White, 2012; North & Fiske, 2016)에서는 자원 부족 점화 조건의 반대로 풍부한 자원 점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독립변수 조작의 차이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자원 부족 점화 조건, 통제 조건, 그리고 풍부한 자원 점화 조건으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이 한다면, 자원의 점화 여부뿐만 아니라 점화된 자원의 양에 따라서도 노인차별주의 경향성이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원 부족과 같이 누군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공감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ote et al., 2013; Stellar et al.,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원 부족을 떠올렸을 때보다 자원 부족을 떠올렸을 때,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받을 피해를 더 많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원 부족이 점화

되지 않았을 때보다 자원 부족이 점화된 상태에서 노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게 되어 노인차별주의적인 태도를 덜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조절변수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노인차별주의를 더 많이 보였으나, 자원 부족 점화와 상호작용하게 되면 노인차별주의를 덜 보이는 것으로 변화하였던 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연구참가자들이 자원 부족이 점화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자원 부족이 점화되었을 때 실제로 노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더 느꼈는지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동정심의 매개효과,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자원 부족을 떠올렸을 때 노인집단에 더 크게 동정심을 느껴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적게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현재까지 학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인 노인차별주의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한한 자원으로 인하여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여러 이론들을 토대로,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의의도 지닌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원 부족을 실험적으로 점화하여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므로, 인과관계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자원 부족 상황 발생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참가자들의 태도가 변화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경제 위기나 취업난이 심각했

던 해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그 이후의 응답을 비교하여,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실제 현상으로서의 자원 부족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이고 더욱 강력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를 노인차별주의의 개입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통하여 노인차별주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노인 접촉 경험의 효과를 재확인하였다. 즉, 노인들과의 긍정적인 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노인들과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노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접촉을 통해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접촉 가설(Contact theory; Allport, 1954)과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노인차별주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김민희, 2013; Allan & Johnson, 2008; Boswell, 2012; Lytle & Levy, 2019; Stewart et al., 2005; Tam et al., 2006; Van Dussen & Weaver,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협력적 주거 복지 모델인 룸 셰어링이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을 촉진하여 노인차별주의를 감소시킬 좋은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룸 셰어링은 노인들이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임대하여 주고, 대학생들은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말동무 되기, 전자기기 작동법 안내하기 등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한겨레, 2015).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청년세대가 직면한 주거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그들이 지닌 노인들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노인들의 긍정적인 모습도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간접 접촉 경험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편견의 대상과 면대면으로 마주하는 직접 접촉 외에,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 또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Herek & Capitanio, 1997).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를 통한 부정적인 간접 접촉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부정적인 노인의 모습을 자주, 그리고 많이 접할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안순태, 강하나, 201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건대, 미디어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노인들의 모습을 빈번하게 제시한다면,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관찰된 조절효과는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개입할 방안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격을 지닌 연구로서, 자원 부족 상황 하에서 청년들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조절변수로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를 중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자원의 양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후에는 자원 분배 공정성 지각의 세대 차, 청년세대를 향한 노인세대의 연령주의적 태도, 노인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 자원을 둘러싼 세대집단 및 사회계층 간 갈등과 그로 인한 상호 차별적 태도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학술적 의의와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는 한 가지 제한점과 대안적인 설명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는 사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에 따라 실험 처치를 달리 한 후 조건 간 노인차별주의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가자들이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할당 되었으나, 자원 부족 점화 이전에 연구참가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자원에 대한 인식이나 노인차별주의 수준을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통제집단 사후측정 설계는 사전 측정이 실험 처치에 대한 연구참가자들의 민감도를 높여 실험 처치의 효과가 실제보다 증폭될 가능성, 즉 상호작용 시험효과(채서일, 김주영, 2016)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아주는 이점을 지니나, 실험 처치 이전에 조건 간 개인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닌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에 따라 연구참가자들의 자원 부족에 대한 인식과 노인차별주의적 태도를 실험 처치 이전에도 측정하되, 상호작용 시험효과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측정과 실험 처치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조건 간 사전 동질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어 노인차별주의의 차이가 연구참가자들의 기존 특성이 아닌 자원 부족의 점화로 인한 것임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한 조절효과는 탐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결과를 반복검증하고 대안적인 설명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원 부족이 점화되지 않았을 때보다 자원 부족이 점화되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노인차별적인 태도를 덜 보인 이유는, 자원 부족 상황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인세대를 외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게 유도했기 때문일 수 있다. 집단 갈등의 도구적 모델(Esses et al., 199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평소 자원 부족을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원 부족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자원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다. 자원 스트레스는 공공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므로, 만약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노인세대를 외집단으로 인식하였다면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어야 한다. 즉, 자원 부족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노인차별주의가 오히려 낮아진 결과는, 자원 부족의 점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노인세대의 어려움에 더 공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세대를 내집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원 부족을 점화한 후 노인세대를 부유하거나 가난한 집단으로 제시하여 그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겠다. 이때, 부유한 노인들과 가난한 노인들을 내집단으로 구분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 만약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부유한 노인들보다 가난한 노인

들에 대해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가난한 노인을 내집단으로 분류한다면, 위의 대안적인 설명이 지지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노인들이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인 혐오가 만연해 있는 시점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인차별주의를 야기하는 거시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혜 (2003). 인터넷 신문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의 분석. *한국노년학*, 23(1), 13-30.
- 김민희 (2013). 노인접촉,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죽음불안이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435-456.
- 김완태, 조문기 (2015). 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노인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어일문학*, 65, 287-302.
- 김 욱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김 욱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김주현 (2009). 연령주의 (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 361-391.
- 김주현 (2015). 한국 고령자의 연령차별 경험과 노년기 인식 질적 연구. *한국연구학*, 38(1), 69-104.
- 김주현, 주경희, 오혜인 (2013). 경제활동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60, 287-321.
-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89-106.
- 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45-72.
- 박현식 (2008). 공공부조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1, 7-25.
- 변상우 (2018).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 심리학에서 개념화 및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101-130.
- 서재교 (2015.11.22.). ‘룸셰어링’으로 대도시 주거 문제 푼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8578.html#csidx26697e0253515f4bb09a5cd1aa7cae0 에서 자료 얻음.
- 신광영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97-127.
- 안순태, 강한나 (2018). 소셜미디어를 통한 노인에 대한 간접 접촉이 노인 차별에 미치는 영향. *광고 PR 실학연구*, 11(3), 7-29.
- 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김 영, 김남희 (2018). 노인의 차별경험인식과 자살사고간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73(3), 215-239.
- 왕명자 (2010).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관계.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1), 101-109.
- 이재경 (2018).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한국의 렌트 (추구) 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8, 18-48
- 이현미, 김준영 (2019.1.1). 청년 7.8% “뜰딱·연금충들”...노인 16.6% “들어본 적 있다” [‘세대 갈등’에 멩드는 한국-신년특집].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231003302> 에서 자료 얻음.
- 장혜순, 조인숙 (2003). 한국의 전래동화 속에 나타난 ‘노인’의 특성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4(2), 79-98.
-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조성희, 김경미 (2016). 노년기의 차별 및 배제 경험에 대한 인식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71(3), 359-387.
- 진철숙 (2015).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기관상담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0), 193-204.
- 채서일, 김주영 (2016).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비엠엔북스.
- 천희란, 김일호 (2013). 노인차별(ageism)의 사회적 경제적 관련요인과 건강영향. *한국노년학*, 33(3), 601-615.
- 천희란, 김일호 (2017). 노인차별과 정신건강: 감정반응의 매개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5), 2741-2754.
- 통계청 (2019.09.27). 2019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7701 에서 자료 얻음.
- 황민영, 정순돌, 김주현 (2018).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1), 65-103.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lan, L. J., & Johnson, J. A. (2008).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1), 1-14.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Bar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ess, H., Mackie, D. M., & Schwarz, N. (1992). Mood effects on attitude judgments: Independent effects of mood before and after message elabo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585-595.
- Boswell, S. S. (2012). “Old people are cranky”: helping professional trainees’ knowledge, attitudes, aging anxiety, and interest in working with older adults. *Educational*

- Gerontology*, 38(7), 465-472.
-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4), 243-246.
- Butler, R. N. (1980). Ageism: A foreword. *Journal of Social Issues*, 36(2), 8-11.
- Butler, R. N. (1987). Ageism. In G. L. Maddox & R. C. Atchley (Eds.), *The encyclopedia of aging* (pp. 22-23). New York: Springer.
- Butler, R. N. (1995). Ageism. In G. Maddox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 Côté, S., Piff, P. K., & Willer, R. (2013). For whom do the ends justify the means? Social class and utilitarian mor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3), 490-503.
- Durante, K. M., Griskevicius, V., Redden, J. P., & White, A. E. (2015). Spending on daughters versus sons in economic reces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3), 435-457.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Fan, L., Li, X., & Jiang, Y. (2019). Room for opportunity: Resource scarcity increases attractiveness of range marketing off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6(1), 82-98.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9(1), 56-66.
- Halperin, E., Canetti-Nisim, D., & Pedhazur, A. (2007). On the central role of “threat perception” in mediating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factors on xenophobic attitudes. In M. Al-Haj & R. Mielke (Eds.), *Cultural diversity and empowerment of minorities: Perspectives from Israel and Germany* (pp. 121-138). Oxford, UK: Berghan.
- Hayes, A. F.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Second Edition]. (이형권 옮김). 경기: 신영사. (원본출간년도: 2013)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erek, G. M., & Capitanio, J. P. (1997). AIDS stigma and contact with persons with AIDS: Effects of direct and vicarious conta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1), 1-36.
- Hill, S. E., Rodeheffer, C. D., Griskevicius, V., Durante, K., & White, A. E. (2012). Boosting beauty in an economic decline: mating, spending, and the lipstick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2), 275.
- Hutchison, P., Fox, E., Laas, A. M., Matharu, J., & Urzi, S. (2010). Anxiety, outcome expectancies, and young people's willingness to engage in contact with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36(10/11), 1008-1021.
- Ishii, K., & Tado'oka, Y. (2015). The influence of pathogen threat on ageism in Japan: The role of living with older adults.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86(3), 240-248.

- Johnson, W., & Krueger, R. F. (2005). Higher perceived life control decreases genetic variance in physical health: evidence from a national twin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65-173.
- Kahneman, D. (1999). Objective happines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3*(25), 1-23.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 Lau, B. W., & Pritchard, C. (2001). Suicide of older people in Asian societ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20*(4), 196-203.
- Lench, H. C., Levine, L. J., Perez, K., Carpenter, Z. K., Carlson, S. J., Bench, S. W., & Wan, Y. (2019). When and why people misestimate future feelings: Identifying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6*(5), 724-742.
- Lytle, A., & Levy, S. R. (2019). Reducing ageism: Education about aging and extended contact with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59*(3), 580-588.
- Mitchell, T. R., Thompson, L., Peterson, E., & Cronk, R. (1997). Temporal adjustments in the evaluation of events: The "rosy view".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4), 421-448.
- Nelson, T. D. (2002). *The psychology of prejudice* (pp. 98-102). Boston: Allyn and Bacon.
- North, M. S., & Fiske, S. T. (2012).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138*(5), 982-997.
- North, M. S., & Fiske, S. T. (2016). Resource scarcity and prescriptive attitudes generate subtle, intergenerational older worker exclusion. *Journal of Social Issues, 72*(1), 122-145.
- Osgood, N. J. (2000). Ageism and elderly suicide: The intimate connection. In A. Tomer (Ed.), *Death attitudes and the older adult: Theories concepts and applications* (pp. 157-174). Philadelphia, PA: Routledge.
- Ospina, J. H., Cleveland, J. N., & Gibbons, A. M. (2019). The relationship of employment scarcity and perceived threat with ageist and sexist Attitudes. *Work, Aging and Retirement, 5*(3), 215-235.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Pratto, F., & John, O. P. (1991). Automatic vigilance: The attention-grabbing power of negative soc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380-39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ios, K., Sosa, N., & Osborn, H. (2018). An experimental approach to intergroup threat theory: Manipulations, moderators, and

- consequences of realistic vs. symbolic threat.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9(1), 212-255.
- Roux, C., Goldsmith, K., & Bonezzi, A. (2015). On the psychology of scarcity: When reminders of resource scarcity promote selfish (and generous)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4), 615-631.
- Schmuck, D., & Matthes, J. (2015). How anti-immigrant right-wing populist advertisements affect young voters: Symbolic threats, economic threats and the moderating role of educ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1(10), 1577-1599.
- Shah, A. K., Mullainathan, S., & Shafir, E. (2012). Some consequences of having too little. *Science*, 338(6107), 682-685.
- Sharma, E., & Alter, A. L. (2012). Financial deprivation prompts consumers to seek scarce good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3), 545-560.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London: Routledge.
- Sherif, M., Harvey, O. J., White, J., Hood, W., & Sherif, C.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OK: University Book Exchange.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703-720.
- Spiller, S. A., Fitzsimons, G. J., Lynch Jr, J. G., & McClelland, G. H. (2013). Spotlights, floodlights, and the magic number zero: Simple effects tests in moderated regres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0(2), 277-288.
- Stellar, J. E., Manzo, V. M., Kraus, M. W., & Keltner, D. (2012). Class and compassion: Socioeconomic factors predict responses to suffering. *Emotion*, 12(3), 449-459.
- Stephan, W., & Renfro, C. (2004). The role of threat in intergroup relations. In Mackie, D. & Smith, E. (Eds.),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pp. 191-207). New York: Psychology Press.
- Stephan, W., Ybarra, O., & Morrison, K. (2009). Intergroup threat theory. In Nelson, T. (Ed.),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pp.43-59). New York: Psychology Press.
- Stewart, J. J., Giles, L., Paterson, J. E., & Butler, S. J. (2005).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New Zealand students entering health professional degrees.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Geriatrics*, 23(4), 25-36.
- Tam, T., Hewstone, M., Harwood, J., Voci, A., & Kenworthy, J. (2006). Intergroup contact and grandparent-grandchild communication: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on implicit and explicit biases against older people.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3), 413-429.
- Van Dussen, D. J., & Weaver, R. R. (2009).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and behaviors related to the aged and to aging processes. *Educational Gerontology*, 35(4), 342-357.
- Varnum, M. E., Blais, C., Hampton, R. S., & Brewer, G. A. (2015). Social class affects neural empathic responses. *Culture and Brain*, 3(2), 122-130.

- White, A. E., Kenrick, D. T., Neel, R., & Neuberg, S. L. (2013). From the bedroom to the budget deficit: Mate competition changes men's attitudes toward economic redis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6), 924-940.
- Wirtz, D., Kruger, J., Scollon, C. N., & Diener, E. (2003). What to do on spring break? The role of predicted, on-line, and remembered experience in future choice. *Psychological Science*, 14(5), 520-524.

논문 투고일 : 2021. 02. 16

1 차 심사일 : 2021. 02. 24

게재 확정일 : 2021. 04. 09

The Effect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in the Younger Gener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Inyeong Lee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socio-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ageism, investigating whether the influence of the resource scarcity on ageism in the younger generation depends on socioeconomic status. To test this hypothesis, we conducted an online study of 219 adults in their 20s and 30s. Specifically,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resource scarcity priming condition or the control condition, and completed a writing task. After this, participants responded to ageism and socioeconomic status items. As a result, the effect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was not significant. However, we found that socioeconomic status moderated the impact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In other words, resource scarcity priming has been shown to significantly reduce ageism for individuals who have relatively lower socioeconomic status. This finding is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in which people of low socioeconomic status were found to be more sympathetic to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suffering deleterious situations such as resource scarcity. This work is significant in that we have looked at both the situational and personal factors influencing ageism, and in that we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causal influence of resource scarcity on ageism through an experimental approach. However, since the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findings has not been completely excluded, replication through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Key words : ageism, resource scarcity, socioeconomic status (SES), moderating effect, younger generation